

北 '김정은 체제' 가동

당·정·군 고위급 대동 빈소 참배 첫 공개활동

美 "北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정권 전환 희망"

관련기사 2·3·4·5·6·8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17일 급사함에 따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축으로 하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북한의 새 영도자로 등극한 김정은 부위원장은 20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립 내각 총리,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 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진을 대동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김 위원장 사후 김 부위원장의 첫 번째 단독 공개활동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보여줌으로써 김 부위원장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외위원 명단에 첫 번째 올라 있는 김 부위원장은 제일 먼저 김 위원장의 빈소에서 참배한 뒤 상주 자격으로 조문객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김 부위원장의 이름 앞에 일제히 '존경하는'이란 존칭적 수식어를 사용했다. 지난 1998년 '김정일 시대'를 개막하며 김 위원장의 이름 앞에 '경애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던 점을 감안하면 김 부위원장에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김정은 시대'를 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통신은 참석자들이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그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장군님(김정일)의 한생의 염원을 기어이 성취하고자 맡 맡은 맹세를 다졌다"고 전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이날 '영원한 우리의 김정일 동지'란 장문의 정론을 통해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란 표현을 동원,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주력했다. 북한 주민들도 이틀째 김 위원장의 급사를 예도 하면서 김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시를 다졌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보낸 조진 등을 통해 김 부위원장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사실상 인정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전환(transition)'을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오후 2시께 시신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께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유리관 속에 안치된 김 위원장의 시신 모습을 방영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시신을 방부처리해 김 주석처럼 금수산기념궁전에 영구보존할 것으로 보인다. 화면에 비친 김 위원장의 시신은 붉은 천으로 가슴까지 덮여 있었고, 김 위원장이 평소 즐겨 입던 인민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합사

"인간적 애도...차분하게 화해·공존의 길 가자"

종교 지도자들이 '김정일 사망' 메시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접한 종교 지도자들이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차분하게 애도하며, 평화와 화해의 길을 마련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희중(히지도·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 회장)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은 20일 오전 광주대교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박하게 생각하면 마음 원수가 상을 당해도 위로를 하는 법이다. 실리 계산과 자존심보다는 민족 평화의 대의명분을 먼저 앞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단회의도 중 사망 소식을 접했다는 김 대주교는 "현재도 미진한 북한 관계지만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도록 북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9월 국내 7대 종단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남 기회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도 남한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주교는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남북의 종교인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대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 초 실무진이 개성을 방문한다고 소개했다.

또 이날 동지를 앞두고 팔죽 공양을 위해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김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김희중 대주교



자승 스님

해 "종단의 대북교류 기초는 현재와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국립소록도병원을 위문차 방문한 자승스님은 "김 국방위원장이 사망해 정국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지만 남북관계마저 혼란과 동요를 일으키지는 않길 바란다"며 "오려려 이번 일이 남북 대화와 교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조계종도 흔들리지 않고 대북교류의 기존 기조의 '공존과 상생'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종단 공식입장은 내부회의 등을 거쳐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임동률기자 kroh@



북한 조선중앙 TV가 20일 오후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을 공개하고 있다.

〈TV 캡처〉

정부 "北 주민들에 위로 전한다" 조의

조문단은 안 보내기로...이희호 여사·현정은 회장 방북 허용

정부는 2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사실상 조의를 표명했지만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반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선 북측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가진 뒤 류무의 통일부장관의 정부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 장관은 또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

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 차원의 조의(弔意) 표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 속에 '남남갈등'이 유발될 기미를 보이자 김 위원장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위로의 뜻을 전하는 방식으로 비켜가는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나 조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류 장관은 또 "정부는 북한이 애도기간에 있는 점을 감안해 전방에서 성탄 트리 점등을 올해에는 유보하도록 종교계에 권유할 계획"이며 "국민은 현 북한 상황과 관련해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길에 오르기로 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직접 조문을 가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여사와 정 회장 측 인사를 제외한 다른 단체나 개인의 조문 방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방북 조문'을 김 전 대통령과 정 전 회장의 유족으로 제한하면서 진보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무현재단 측은 이날 통일부에 유선으로 조문 방북을 신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800~1000명 증원 필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사측의 62만대 증산 계획과 관련, "증산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인력이 800~1000명 이상 더 필요하다"며 "인력 충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10면〉
전국급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박병규 지회장은 20일 광주시 서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계획은

공장이 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환영한다"며 "하지만 그만큼의 인력 충원과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회장은 "지난 4년 사이에 광주공장의 생산량은 30% 이상 늘었는데 인력은 그대로, 그만큼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노동강도가 세졌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박 지회장은 "기아차가 세계적인

자동차메이커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물량 중심의 성장주의를 넘어 고품질·고부가가치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숙련을 위한 직무교육, 노동시간 단축, 휴식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측은 인력 증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내년 증산계획 추진을 앞두고 노사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신대학교
2012학년도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가운
[원서접수] 2011.12.22(목)-27(화)
www.kwangshin.co.kr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경 대광여고 2011.12.20 창익경영학교(사교육절감형) 전국최우수기관 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광주 남구 문화 교육특구』 중심 전국최우수 중등교육기관

김신주 (제9회졸업) 이화여대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교육청 승인 '수학영재학급' 8년 연속 운영
• 전국 최우수 '영어교육 리더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 2007·2008·2009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 최우수학교 교육감특별상 수상
• 2009·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최우수 교육감상 수상

나왕영 (제14회졸업) 서울대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하버드대 Ph.D 등 외국유학생 218명 배출
• 서울대 의예과 등 전국 의·치·한의예과 총358명 합격!
• 서울대 최근 12년간 총 '72명' 합격!
• 서울대 법학과 전국 여고 최초 12개년(15명) 합격!
• 사법시험 합격자 20명 배출!

조은화 (제15회졸업) 경찰대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김준화(제10회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제45회 사법시험합격 서울대 법학과 전국 여고 최초 12개년(15명)합격
조유리(제14회졸업) 서울대 의대 졸업 서울대병원 근무 전국 의·치·한의예과 총358명 합격
박이경(제1회졸업) 하버드대 Ph.D 졸업 외국유학생 218명 배출
고인선(제12회 졸업) 제47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시험 합격자 20명 배출
우가현(제22회졸업) 경찰대학교 재학
신이정(제23회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 합격 서울대학교 최근 12년간 총72명 합격

세계로! To the World! 대광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未來로! To the Future!